

“맞춤형 인재 배출… 벤처가 강한 대학”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외협력팀

인하대학교는 우리나라 첫 이민인 하와이동포들이 이주 50주년을 기념하여 조국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1954년 창학하게 되었습니다. 인하대는 설립의 배경에 순수한 민족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국의 땅에서 육영의 의지를 펼쳤던 한인기독교학원의 숭고한 뜻과 반세기 앞선 세계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 ‘맞춤형 인재 배출 … 벤처가 강한 대학’

인하대는 평소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이 사회와 기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을 교육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



▲ 인하대학교 본관

출함으로써 예비 지식근로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처가 강한 대학으로 정평이 나있는 인하대의 장점입니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의 대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인하대는 우선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대학제도, 커리큘럼, 전략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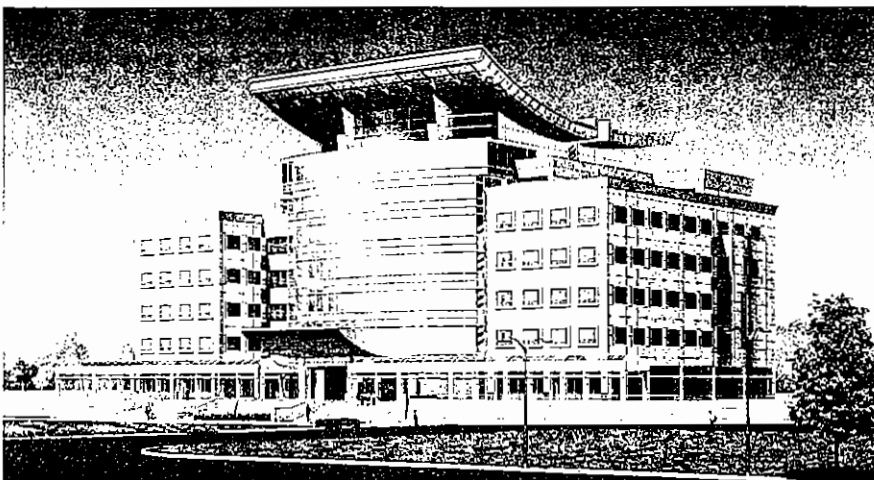
■ 2010년 세계 100위권 대학 목표

인하대는 2010년 국내 7위권 대학,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1998년부터 '인하 비전 2010'을 가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를 개혁의 촉발기간으로 정해 비전을 제시하고 기초체질 강화와 교육 인프라의 구축에 착수하였고, 2단계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를 개혁의 확산기간으로 정해 개혁을 가속화하고 실적을 상승시키며 교

육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개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석학술정보관(전자도서관)'은 원격교육시스템, 컨벤션센터 등을 완비하여 해외 선진 대학들과의 정보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 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외국 대학과의 원격 강의, 원격국제회의의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최첨단 시설을 갖춘 기숙사 옹비재가 건설 운영되고 있고, 제 2기숙사도 올해 착공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11월 완공되는 15층 규모의 인하하이테크센터는 최첨단의 교육시설을 갖춘 첨단공학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인하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자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 대학과의 제도·교수·학생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체제를 구비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디지털화하고 웹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을 더욱 확대·활성화할 것입니다.



▲ 도서관 투시도

한편 세계 수준의 학문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유명 대학과 U7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학점제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9개 분야 특성화

인하대는 이미 1998년부터 동북아의 거점 대학·연구 중심 대학·교육 중심 대학·지역사회 거점 대학으로서의 비교우위와 미래 실용 학문 분야의 특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 분야는 미래첨단기술 부문의 정보통신·생명공학·항공우주·기계공학·재료공학·멀티미디어 분야가 있으며, 기초과학 육성부문에 분자화학 분야, 국제통상전문가 양성부문에 국제통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최우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산학클러스트로 육성하기 위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등 15개 대형국책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이미 우수인력과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 7개 특성화사업단의 20억 원 규모를 2005년에는 9개 사업단 3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특성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간평가와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동북아 물류 중심 Pentaport 인천의 인재 양성에 주력

인하대는 공항(Airport), 항구(Seaport), 첨단산업단지(Techno-Port), 관세자유지역(Tax-Free Business-Port), 레저포트(Leisure Port) 등 펜터

포트(Pentaport)를 갖추게 될 세계적 도시인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의 가교라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류, 금융, 정보가 한국에 물리게 하겠다는 내제적 글로벌화 국가전략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Northeast Asian Business Hub) 개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적 전략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펜터포트'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Techno-MBA 과정을 포함한 실용 학풍의 교과과정 확충
-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의 발전
- BT와 IT를 연계시킨 Bio-IT개발
- 동북아 중심대학을 향한 국제화와 지역화 지향
- CEO 양성을 위한 지역 CEO 양성 프로그램 강화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및 시스템 연구에 대한 지원

■ Tutor System 도입·전액장학생(정석장학생) 대폭 확대

인하대는 교과성적 우수자뿐만이 아니라 특기와 개성,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입생 선발제도를 연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모집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 어학특기자·성적 우수자 추천자 선발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액장학생인 정석장학생을 100명 선으로, 일반장학생을 1000명 선까지 대폭 늘리는 등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수혜율을 높이고, 해외



▲ 49주년 인하 발전 한마당

교류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한 해외 유학 및 연수 제도 등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한 학생을 특수하게 키운다."는 모토 아래 우수한 이공계학생과 어학특기자 학생을 선발하여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프린스턴대 등에서 시행하는 Tutor System(개인전담 지도교수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수한 신입생 한 명을 교수 한 사람이 전담지도하여 해외 유학을 비롯한 진학 및 취업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인하대의 특성을 살려 최첨단 공학·국제통상·물류·국제관계·어문학 분야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100% 취업을 위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철저한 A/S를 할 계획이며, 진로·취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on-line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취업정보를 갖추고 취업·진학·국가고시·자격 취득 등 진로별 트랙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04년 4월 24일은 인하대 개교 50주년

인하대는 2004년 4월 24일로 개교 50주년을 맞습니다. 'D-600일'인 지난 2002년 9월 3일 인하대는 '600일 대장정'을 선언하면서 개교 50주년을 미래 50년의 원년으로 삼고, 인하 가족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 비전 제시를 통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 등을 다짐하였습니다.

지금 인하대는 '제 4세대 인하르네상스'에 들어갔습니다. '인하 재창출의 원년'인 2004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인하 가족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 비전 제시를 통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